



# Shelley's story

A Pathways Link Programme Success Story

##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!

안녕하세요, 저는 셸리이고 중국에서 왔어요. 최근에 Pathways Link Programme (PLP)을 마쳤고, 이제 곧 Foundation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에요. 평소에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,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해요.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걸 해보는 것도 재밌어서 자주 도전해보는 편이에요.

## 뉴질랜드를 선택한 이유는요?

저는 2023년에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엔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현지 고등학교에 다녔어요. 그러다가 PLP로 옮겼는데, 속도도 빠르고 대학 준비도 더 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오클랜드는 다문화적인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고, 도시도 되게 따뜻하고 환영해주는 느낌이라 좋았어요.

## PLP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?

PLP는 15세에서 17세 학생들을 위한 1년짜리 과정이에요. 공부 기초를 잘 다질 수 있고, 오클랜드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바로 연결돼요. 대학 가기 전에 준비하기에 딱 좋은 코스예요.

## 하루 일과는 어땠나요?

수업은 보통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40분쯤 끝났어요. 과목은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됐고, 영어, 비즈니스, 회계, 지리, 체육 같은 수업을 들었어요.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셨고, 반 친구들도 여러 나라에서 와서 서로 문화도 배우고 잘 어울릴 수 있었어요. 분위기도 좋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.

## Student profile

### STUDENT NAME

셸리 차이 (Shelley Chai)

### NATIONALITY

중국

### PROGRAMME

University of Auckland  
International College  
Pathways Link Programme (PLP)



The University of Auckland  
Certificate in Foundation Studies  
(level 3) (Standard)



장학금을 받고 나서  
스스로에 대한 자신  
감이 생겼어요.”

### PLP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였나요?

선생님들이 정말 최고였어요. 항상 도와주시려고 하고,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어요. 친구들도 쉽게 사귄 수 있었어요. 학교에서는 영어로 대화하고, 수업 끝나고는 같이 활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.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학생들에게 정말 긍정적이었어요.

### 공부 말고 재밌었던 활동도 있었나요?

박물관도 가고, 골프랑 스쿼시도 해봤고, 지역 스포츠 활동에도 참여했어요.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선생님이랑 반 친구들이랑 같이 스쿼시했던 거예요. 코치한테 배운 다음에 다 같이 게임도 하고 점심도 나눠 먹었어요. 새로운 걸 배우면서 재밌게 보낸 시간이었어요.

###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요?

수학, 영어, 생물, 지리, 비즈니스 같은 과목에서 1등을 했어요. 그리고 5,000달러 장학금도 받았고요. 그게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됐고,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. 부모님이 뉴질랜드에 오셔서 같이 남섬 여행도 했어요.

### 홈스테이 생활은 어땠나요?

제 홈스테이 가족은 중국 분들이고, Avondale에 큰 집에 살고 계세요. 정말 친절하고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. 제가 아플 때는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, 학교에도 연락해주셨어요. 항상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학교 이야기도 나눴어요. 덕분에 뉴질랜드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.



### 직접 해보니까 PLP랑 Foundation 과정은 뭐가 가장 다르던가요?

PLP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이 진행되는데, Foundation에서는 대학에서 전공할 분야에 맞춰서 과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. Foundation 학생들은 보통 나이도 조금 더 많고, 과목마다 선생님도 달라요.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대학 같아요.

### UoAIC와 오클랜드대학을 선택한 이유는요?

UoAIC는 오클랜드대학교와 공식 파트너십이 있어서, Foundation 과정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어요. 오클랜드대학교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이고, 저는 파이낸스나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싶어서 다양한 전공 옵션과 다문화적인 캠퍼스 환경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. 제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

###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?

저는 나중에 회계사가 되거나 유명한 은행에서 일하고 싶어요.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한 번 장학금도 받으면 좋겠고요. 결국에는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일하는 게 제 목표예요. 이 나라는 안전하고, 자연도 아름답고, 기회도 많거든요.

“

여러 과목에서 1등을 하고 5,000달러 장학금도 받았어요!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.”